

▶ 제2주제 발표 ◀

역사·문화 기반의 지역재생 과제

0. 역사문화에 대한 단순한 질문
1. 인사동과 북촌
2. 인사동
3. 인사동의 변화와 대응
4. 도시연대의 인사동에 대한 반성
5. 북촌
6. 북촌에 대한 도시연대의 대응-뚜벅이투어를 중심으로
7. 서울시의 북촌 관광 전략 추진
8. 도시연대가 바라본 북촌의 과제
9. 마무리

2011. 7. 6

김 은 희

(견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사무국장)

역사문화 기반의 지역재생 과제

- 인사동과 북촌사례를 중심으로 -

김은희

(사)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역사문화에 대한 단순한 질문

- 왜 우리네 역사문화는 조선시대, 개화기에만 머물러 있을까?
- 우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역사문화는 역사문화가 아닌가?
- 차가운 표석만 있는 고립된 역사문화장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 역사문화는 주민들의 삶의 영역과 호흡할 수 없는 것일까?
- 역사문화는 품격과 볼거리가 전제되어야 하나?
- 일상적 삶의 문화는 문화가 아닐까?
- '상품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쇠락하고 침체된 것인가?

1. 인사동과 북촌

-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위치, 권문세도가들의 주거지
- 갑신정변, 3·1운동, 해방 후 좌우익 대립 등 역사적 장소
- 1960년대 서울의 가장 고급 주거지



3

2. 인사동

- 1920년 - 1930년 서적관련 업종 입지 (한남서림)
- 1945년 - 1960년 통문관, 삼중당 등 서점 입지
- 1960년 - 1970년 골동품 및 표구점 본격 입지
- 1970년 - 화랑업종입지, 지업사와 화방 등 활성화
- 1997년 4월 매주 일요일 인사동 차없는 거리 시행



4

3. 인사동의 변화와 대응

차 없는 거리 시행
(인사동번영회주도)

노점상 난립
저급 수입품 판매
인사동 고객층 변화

인사동 연구조사
(도시연대)

<인사동 연구조사 결과>

- 인사동과 일체화되지 못하는 이벤트 형 행사 지양 필요
- 거리활성화 주체로서 상인들의 역할과 참여방안 제시 필요
- 보존과 개발이라는 양면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모색 필요
- 개발압력과 지가상승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필요



5

인사동길 확폭

인사동길 확폭 찬성
(인사동번영회)

인사동길 확폭 반대
(도시연대+인사동상인)

- 찬성 : 인사동 활성화를 위해 건물과 길을 늘려야 한다
- 반대 : 자본들의 재건축부지 확보와 도로확폭은 합필재개발과 상점대형화 가속 인사동 경관과 거리문화 훼손
- 결과 : 확폭 재검토



민익두 家
(민속자료 16호)

소방도로신설계획
(1998년)

민익두가 살리기 (한옥살리기운동)
(도시연대+시민)

- 결과 : 서울시+소유주 부담 : 민가다원 운영



6

| | | |
|---------------------------|---------------------------|--------------------------------------|
| 인사동 바로알기 (1997년-1998년) | 인사동 보물찾기 (1998년-2002년) | 인사동 학교 (2001년-2006년) 도시연대인사모구성 |
|---------------------------|---------------------------|--------------------------------------|

< 인사동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 단순 소비자로서의 시민에서 인사동 가꾸기 주체로 설정>
- 인사동의 역사장소, 건축물, 골목길, 문화업종에 대해 바로 알기
-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계층별 구분하여 인사동 가치 공유
- 인사동 상인과 시민과 교류
- 도시연대 인사모 주도의 '역사알림판', '인사동 뉴스레터' 제작
- 인사동 가꾸기에 대한 시민의식 확산



7

| | | |
|------------------------------|--|--------------------------------------|
| 인사동 12가게 재건축추진 (1999년) | 인사동 작은가게살리기 (1999년-2000년) (도시연대) |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2001년-2002년) (서울시) |
|------------------------------|--|--------------------------------------|

- 12개의 문화업종 입지 / 건설회사의 6층 모텔 추진
- 도시연대의 인사동 개발에 대한 위기의식 및 인사동가치 제시
: 골목길+낮은건물+작은가게+문화업종
- 시민서명 및 청원운동, 전문가 성명서 발표, 상인들의 본격 지지
- 서울시의 건축허가 제한조치 발표
-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문화지구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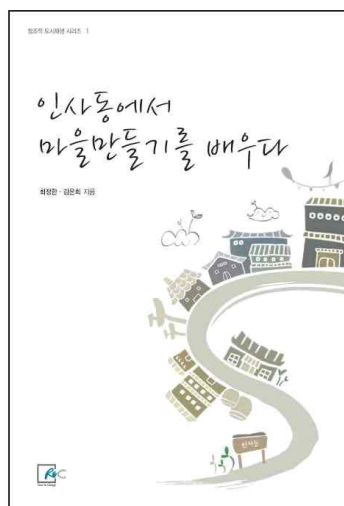
8

4. 도시연대의 인사동에 대한 반성

인사동 보존과 관련된 주요한 이슈에 극단적 대립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상인 및 주민과의 공개 토론회, 합의 형성 과정 등을 거치면서 해결점을 찾아나감.
각 운동의 결과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
그러나...

- 시장경제적 대안 부재
 - : 인사동 이미지를 형성하는 업종들의 경쟁력 있는 대안 마련 부재
 - :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인사동 고유업종 퇴출
- 인사동에서의 전통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재
 - : 모든 전통은 인사동으로 통한다?
- 인사동 보존회 내부 역량 및 배타성
 - : 상인 외에는 모두 외부세력이라는 인식

9



전통과 역사적 장소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문화적 접근은 필요하다.

그러나 문화적 가치를 수단화할 경우 그 가치가 재창조되기 보다는 자본의 논리속에서 왜곡되기가 쉽다.

지켜야 할 원형의 보존은 삶의 지속성과 연계되어야 하며 새로운 세대의 문화적 욕구와 소통하기 위한 개방성과 창조성을 가져야 한다.

10

5. 북촌

- 1977 : 고도지구 지정(10m)
- 1983 : 제4종미관지구 지정(주택1층)
- 1985 : 한옥지구 도시설계
- 1990 : 전통문화지대 복원정비계획
- 1991 : 주택3층 허용(다세대, 다가구)
- 1994 : 고도 10m에서 16m로 완화
- 1996 : 북촌정비계획(종로구)
- 2000 : 북촌가꾸기 사업 추진 (서울시)
- 2002 - 한옥등록제 및 한옥매입 추진
- 2002 - 북촌문화센터 개소
- 2009 : 북촌지구단위계획 수립

2002년부터 규제중심의 한옥보전정책에서
지원중심 한옥보전정책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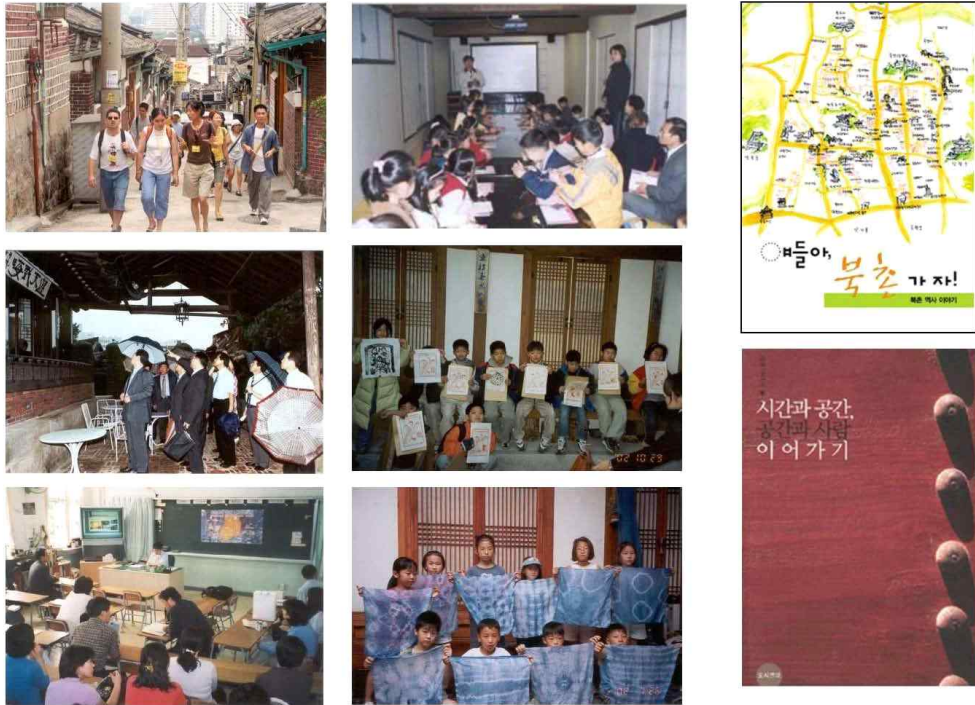


11

6. 북촌에 대한 도시연대의 대응 - 뚜벅이투어를 중심으로

- 배 경 : 한옥보존에 반대하는 북촌 주민들에게 북촌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
공유를 위한 시도
: 주제별, 연령별 코스 개발
- 진행코스 : 북촌 한옥길 걷기 (가회동 31번지/11번지)
문화재급 한옥방문 (윤보선가/김정수가/백인제가 등)
북촌장인과의 만남 (옷칠공예/ 매듭/오죽공예 등)
북촌작은박물관 방문 (가회박물관 / 티벳박물관 등)
북촌의 역사장소 (3.1운동/갑신정변과 개화기/해방후 좌우익활동 등)
- 진행과정 : 외국인 및 주민 대상 시도 (2001년)
: 가회어린이집 / 재동초등학교 / 중앙중고등학교/ 북촌주민/ 공무원
등 대상별로 2002년 12회 진행
: 가회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으로 정규화
(2002년-현재)
: 서울시에서 2006년부터 프로그램으로 정규화

12



13

7. 서울시의 북촌 관광 전략 추진

- 배 경 : 서울시의 외국인 관광객 1500만명 유치 목표
 : 북촌을 주요 관광 코스로 선정
- 진행내용 : 서울시 도보해설 코스로 북촌 선정
 : 하이서울페스티벌 축제 개최 장소 중 하나로 북촌 선정
 : 북촌팔경 선정 및 발표
 : 포토존 설치
 : 1박2일 방영
 : 관광객 급증



14

6. 도시연대가 바라본 북촌의 과제

< 서울시의 외지인 중심의 관광전략은 주민들의 건강한 주거지를 훼손하는 결과 초래 >

- 서울시의 북촌 정책 일관성 부재 (담당 부서의 교체로 인한 혼란)
- 북촌문화센터의 정체성 상실 (문화강습소?)
- 서울시 관광정책의 한계 (북촌관광정책 방안 수립 부재)
- 근린생활상권의 급격한 몰락 (고급상권 형성)
- 개방형 한옥의 문화시설 및 개별 문화시설(공방) 급증
- 전세 주거지의 월세 사무실화 / 재동초등학교 학생수 급격한 감소

< 도시연대의 인식 : 찾고싶은 북촌보다 살고싶은 북촌이 먼저 !>

- 관광객 중심의 '쉼터'가 아니라 북촌 주민들의 '삶터'로서의 정책 필요
- 한옥을 중심으로 하는 북촌정책에서 한옥과 다세대 등 일반 주거지의 가치를 되살리는 '살고싶은 북촌만들기'로 전환 필요
- 행정주도 축제에서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는 소소한 축제로 전환 필요
- 적극적인 관광전략 필요

15

북촌의 한옥은 지켜냈으나 북촌에 담겨 있는 주민들의 삶은 자본의 논리를 우선하는 관광산업화 속에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북촌은 외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박물관이나 민속촌이 아니다.

주민들의 일상적 삶이 영위되고 있는 주거지이기에 다양한 문화관광 정책은 적정선을 유지해야 한다.

문화과잉은 오히려 삶의 연속성속에서 축적되어 온 일상문화를 침체시키며, '정책적 문화'는 주민들의 삶과 괴리될 수 밖에 없다.

북촌의 역사문화적 자산은 북촌을 잘 가꾸려는 주민들의 몸짓이어야 한다.

16

마무리

역사문화의 재생은
과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성찰속에서 자리잡게 된다.

그 속에서 역사문화는
고정된 불변의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현장이고 모습이며
삶의 응축된 결과물로 다가온다.